

■ 예산정국 여야 격돌 불가피

檢 수사·UAE 파병·FTA... 뇌관 즐비

국회가 15일부터 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완연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예산정국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 심의 중에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정목회) 입법로비 의혹 및 '대포폰'과 관련한 검찰 수사 논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목회 로비 수사와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검찰의 정목회 관련 수사는 예산국회 내내 정치권과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목회 수사가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에서 검찰의 소환조사 등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불거진 '대포폰' 의혹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광·한화·C&G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목회에 이어 여의도를 겨냥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UAE 파병동의안**=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파병이 UAE에 한국형 원자료를 수출하는 데 따른 대가라는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

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었다면 국가적 망신이자 제국주의적·구시대적 발상으로, UAE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며 파병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파병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도 여당 내 일부 비판론자들도 파병안 국회 통과와 주요 변수다.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 절차를 놓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파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와 UAE간 4건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 FTA 추가 협상**=야당은 정부가 미국에 '퍼주기식' FTA를 체결하려 한다는 인식 하에 예산국회 기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FTA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수 주 내에 협상팀을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밀실 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폭 양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차영 대변인은 14일 "미국의 일방

적 요구만 수용한 협상은 안되고 여러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밀실·양보 재협상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양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인 만큼, 국회가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한미 FTA는 수출 주동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며 "야당도 국의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환(왼쪽) 외교교통부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14일 오키와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제 강점기 약탈된 조선왕실의례를 비롯한 도서 1205권의 한국 반환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佛 보관 외규장각 도서 144년만에 돌아온다 한·일 "수탈 도서 1205권 반환 합의"

"5년 단위 대역갱신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프랑스가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5년단위 대역갱신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144년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됐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간에 남아 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외규장각 문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하여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 지난 1993년 프랑스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에 돌려준 휘경원원소도감의 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중인 297권으로 모두 원본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이중 30권은 유일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수탈한 조선왕실의례를 비롯한 문화재급 도서 1205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전망이다.

김성환 외교교통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14일 오키와타(前原誠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협정식에는 한국 반환에 합의된 일부 도서가 전시됐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협정문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점이 걸림돌이다. 두 정상은 또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서클외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간 총리는 아울러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일본 방문 때 FTA 협상 재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동2산단 분양 면적 커 中企 외면

대부분 3300㎡ 이상... 47만㎡ 중 25% 분양 그쳐

송경중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 평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면적이 대부분 대규모여서 용지 분양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평(3305.785㎡) 이하 산업시설 용지에는 중소기업들의 분양신청이 쇠대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용지는 외면당하고 있어 용지 분할 분양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경중 의원(민주·광산 3)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분양이 진행중인 평동 2차 산업단지(2, 3공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면적이 전체 총 47만2468.20㎡(약 14만2921평)에서 25%만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팔지로는 총 48필지 중 20필지만이 분양됐다.

미분양 부지는 35만1926.4㎡(10만 645평)에 23필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3만1800여㎡(3필지)는 외국 투자지역이며, 4곳은 분양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용지 분양이 더딘 것은 전체 48필지 중 면적이 3305.785㎡(1000평)를 넘지 않는 필지가 1곳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그 이상 면적으로 크게 조성돼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때문이다. 3305.785㎡대 필지는 11곳에 이르고, 나머지는 모두 6600여㎡를 넘는 대형 부지다.

이 가운데 3300여㎡~7000여㎡대 사이 면적의 부지만이 분양됐고, 7000여㎡ 이상 부지는 사실상 분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300여㎡ 부지 4필지에 대해 32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하는 등 8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나머지 대형 부지 분양은 외면당하고 있다. 7000여㎡ 이상 부지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그림의 떡'이 다름 없는 셈이다.

송 의원은 "1650㎡(500평) 정도를 구하려 하는 중소기업들은 많은데 분양 면적이 너무 커 입주를 하고 싶어 도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미분양인 부지를 분할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산업 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성된 산단 내의 부지를 분할할 때 1650㎡(500평) 이상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공장 요구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필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시 만든 연극 '김치' 국회 간다

예인방 제작... 26일 공연

나주 예술인들이 만든 연극 '김치'가 국회에서 공연된다.

나주에서 활동중인 전문예술극단 예인방(대표 김진호)은 오는 26일(오후 1시30분·오후7시) 국회의원과 회의실에서 연극 '김치'를 공연한다.

이번 국회 공연은 지난날 광주 무대에 올랐던 '김치'를 관람했던 이장현 국회의원 등이 추진해 이뤄졌다.

예인방은 공연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토종 경종배추와 홍갓 등으로 김치 담기 및 김치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담긴 김치는 소외 계층에게 전달되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나주 김치를 나눠줄 계획이다.

연극 '김치'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김치작업을 운영하던 주인공 향숙과 주변 인물들의 따뜻한 사랑을 그린 작품

으로 '용의 눈물' 등을 만든 김재형 PD가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다.

한편 국회 공연을 앞두고 김진호 대표는 15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에게 지자체의 날 지정 등을 건의하는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표는 현재 방영중인 SBS 드라마 '대물'에서 고현정이 분한 서혜림과 맞서는 구대 정치인 김현갑 역으로 출연중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北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중"

美 핵커 박사 밝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실험용 경수로 1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로스앨러모스 핵 연구소장을 지낸 시그프리드 핵커 박사가 13일 밝혔다.

핵커 박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북한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경수로의 발전용량은 25~30MW(메가와트)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제 막 경수로로 건설하기 시작했다면서 완성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지난 9월 말 영변 핵시설 주변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북한이 이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굴착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찰스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는 5일간 방북한 결과 의문의 이 건물이 핵개발과 관련

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난주 말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000MW급 경수로 2기 건설을 약속받았으나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그러나 만일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관심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 전대점 268-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환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을 원하신다면 한 수강료, 점 기량다는 이유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후문앞) 268-8111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가맹점 모집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콩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全)두부란? 기존 두부와 전혀 다른 콩의 고소한 맛과 푸딩처럼 부드러운 이미 선진국에서 장수음식으로 즐겨 먹고 있는 두부입니다.

전두부의 영양 -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주요성분 비교(100g당 함량)		
전 두 부 : 약 3400mg(약 11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로 성인병 예방, 변비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일반두부 : 약 300mg	사포닌	대주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당뇨병 예방에 효과
전 두 부 : 약 27.63mg(약 270배)	레시틴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약 0.1mg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에서 분리한 특수 지방질 성분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임
전 두 부 : 약 29.95mg(약 30배)		
일반두부 : 미량		
전 두 부 : 약 29.17mg(약 3배)		
일반두부 : 약 9.3mg		

대우 영남대학교 기술개발사업(주)대우이맥이 세계 최초로 기밀을 전역 받지 않고 지원용 저당 방식으로 호 약성적인 명품 두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보자 창업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창업 용이

소자본 창업 기행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라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하우 전수, 메뉴(기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케라틴두부, 흑두부, 썩두부)
※ 최고 상권 다양 확보 보유, 적은 형벌 ~ 큰 형벌 운영 가능

오른 가능 지역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광주·전남 체인본부 NAVER 대망이맥 검색

상 담 ☎ 062)383-0029, 010-6625-0866
문 의 ※ 위치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문 옆 ※ 매주 토요일 PM 1:00~ 시식 가능함니다.

오픈 1호점
광주 금호지구
중앙팰리스빌 및 뒷밭 상가 옆